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124. 뜬막 안

자리에 누운 송 영감. 나직히 신음한다. 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옥 수 : 약 잡수셔야죠 ……

송 영감 : (눈을 뜨며) 음?!

옥수 일어나려는 송 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 준다. 약을 마시는 송 영감.

송 영감 : (걱정스럽게) 가만 어떻게 됐지?

옥 수 : ㉠ 저녁때 독을 끌어내야죠 ……

송 영감 : 음!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자기에 가 있다.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한 백자기의 형체. - DIS\* -

# 125. 가마 앞(황혼)

마당에 놓인 중옹, 통옹, 반옹 등 갖가지 독들. 그런데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다. 비틀어진 독, 밑이 내려앉은 독, 거미줄처럼 금이 간 독들.

웁손이, 석현이 걱정스럽게 본다. 그러자 송 영감이 비실거리며 달려온다. 독을 하나하나 살핀다.

송 영감 : (혼잣말처럼) 이럴 수가 …… 지금까지 이런 일 없었는데 ……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절망) 아냐! 이진 독이야! (계속 보며) 이것두! 이것두 …… (비통하게) 이진 흙덩이다! 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웁손이 : ㉡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

송 영감 : 비켓! (뿌리친다)

나가떨어지는 웁손이

석 현 : ㉢ (잡으며) 안됩니다! 성한 것두 있어요!

송 영감 : 닥! 이진 부정을 탓어! 모두 쳐부셔야 했!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다.

㉤\* 뚜왕! 뚜왕!

박살 나는 독들.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

웁손이 : (비통 혼잣말같이) 자네 환장했구먼!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웅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 뚜왕! 뚜왕!

송 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풀썩 주저앉고 만다. 목구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 나온다.

㉦\* 뚜왕! 뚜왕! 뚜왕!

옥수 귀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 가는 박살 나는 독 소리. 송 영감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해 운다. 석양에 물든 하늘.

- DIS -

-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 -

\* DIS :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위로 다음 화면이 나타남.

\* ㉤ : 효과음.

(나)

차차 송 영감의 숨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치\*로 두드려 울릴 때, 피땀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

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웁손이도 흙 몇 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그늘 속에 애가 ㉨ 남쪽 장길을 향해 쫓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밖을 내다보던 송 영감은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 독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 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어 깨워서였다. 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거냐고 하니 애가,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 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는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송 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어 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은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

송 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흠이기던 웁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 영감에게 내년에 마저 지어 첫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 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

\* 조마구와 부채마치 : 용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한 쌍의 도구.

\* 전 : 용기 등 물건의 위쪽 가장자리가 조금 넓적하게 된 부분.

1. <보기>의 관점에서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장인(匠人)'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 ① '아냐! 이건 독이 아냐!'는 ㉠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며,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 ㉢를 향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 준다.
- ② '흙덩이다!'는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의 동기를 드러내고, '흙 몇 덩이'는 ㉢에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를 지칭한다.
- ③ '매섭게 보다가 웅하니 간다'는 ㉠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고, '조수의 환영'은 ㉢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드러낸다.
- ④ '폴짝 주저앉고 만다'는 ㉠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 ⑤ ㉠의 행동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하는' 것은 미적 가치 추구의 어려움을, ㉢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보다는 독에 가 있음을 알려준다.
- ② ㉡ : '앵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을 오만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 준다.
- ③ ㉢ :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 영감'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 준다.
- ④ ㉣ : '송 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 내지 못하는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 : '애'가 언제나처럼 '앵손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에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새로운 인물이 다른 인물의 발화를 통해 등장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전환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 거리와 결부하여 서술함으로써,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①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⑤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읽기 전 활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보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기>가 있기는 하나, 이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보기>입니다.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작품의 제목이 '독 짓는 늙은이'니까 독을 짓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

# 124. 퍽막 안

자리에 누운 송 영감. 나직히 신음한다. 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옥 수: 약 잠수서야죠……

송 영감: (눈을 뜨며) 음?!

옥수 일어나려는 송 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 준다. 약을 마시는 송 영감.

송 영감: (걱정스럽게) 가만 어떻게 됐지?

옥 수: 저녁때 독을 끌어내야죠……

송 영감: 음!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자기에 가 있다.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한 백자기의 형체. - DIS\*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먼저 송 영감과 옥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옥수는 송 영감의 약그릇을 갖다 줍니다. 송 영감이 약을 먹는 것을 보아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약을 먹는 상황에서도 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아 송 영감은 독을 짓는 것에 진심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25. 가마 앞(황혼)

마당에 놓인 중옹, 통옹, 반응 등 갖가지 독들. 그런데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다. 비틀어진 독, 밀이 내려앉은 독, 거미줄처럼 금이 간 독들.

웁손이, 석현이 걱정스럽게 본다. 그러자 송 영감이 비실거리며 달려온다. 독을 하나하나 살핀다.

송 영감: (혼잣말처럼) 이럴 수가……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절망) 아냐! 이진 독이야! (계속 보며) 이것두! 이것두…… (비통하게) 이진 흙덩이다! 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웁손이: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

송 영감: 비켰! (뿌리친다)

나가떨어지는 웁손이

석 현: (잡으며) 안됩니다! 성한 것두 있어요!

송 영감: 닥쳐! 이진 부정을 탕어! 모두 쳐부셔야 했!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다.

㉠\* 뚜왕! 뚜왕!

박살 나는 독들.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

는 옥수.

웁손이: (비통 혼잣말같이) 자네 환장했구먼!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행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 뚜왕! 뚜왕!

송 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풀썩 주저앉고 만다. 목구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 나온다.

㉢\* 뚜왕! 뚜왕! 뚜왕!

옥수 귀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 가는 박살 나는 독 소리. 송 영감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해 운다. 석양에 물든 하늘.

- DIS -

- 황순원 원작, 여수증 각색, 「독 짓는 늙은이」-

\* DIS: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위로 다음 화면이 나타남.

\* ㉠: 효과음.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송 영감, 웁손이, 그리고 석현은 마당에 놓인 갖가지 독들을 바라봅니다. 그 독들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틀어진 것도 있고 밀이 내려앉은 것도 있습니다. 송 영감은 이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며 절망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르지 않은 독을 만들었을 리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망치를 들고 독들을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웁손이와 석현은 송 영감을 말리려 하지만, 송 영감은 미친 사람처럼 독을 부수니다. 이는 자신이 만든 독에 대한 불만족, 분노, 절망 등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송 영감은 독을 짓는 것에 대해 진심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독을 제대로 짓지 못하자 지은 독을 다 부수게 됩니다.

#작품 총평

송 영감이 독을 짓는 것에 대해 진심인 인물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면 읽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이런 극장르는 대부분 내용이 어렵지 않기에 인물의 특징을 빠르게 잡고 넘어갈 수 있었어야 합니다.

(나)

차차 송 영감의 숨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치\*로 두드려 올릴 때, 피뚱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웁손이도 흙 몇 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 쫓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밖을 내다보던 송 영감은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독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 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 조마구와 부채마치 : 용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한 쌍의 도구.  
\* 전 : 용기 등 물건의 위쪽 가장자리가 조금 넓적하게 된 부분.

송 영감에게 내년에 마저 지어 첫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렵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 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송 영감은 독을 지을 때 독을 그만 얇게 지어버리거나 손이 떨리는 등 독 짓는 솜씨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을 지은 후에는 쓰러지게 됩니다. 송 영감의 독 짓는 솜씨나 건강 상태가 둘 다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 영감은 저녁때가 되어 다시 일어난 후 다시 독을 짓고 쓰러지듯이 눕고 맙니다. 이를 보면 송 영감은 독을 짓기를 원하지만,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독을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화적 독해 태도

송 영감은 독을 지으면서 아내와 조수의 환영을 보고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송 영감이 아내와 조수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작품 전체 줄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송 영감의 아내는 조수와 눈이 맞아 아들인 당손이를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과 남게 된 송 영감은 아내와 조수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러한 줄거리를 알 수 없기에, 송 영감이 아내와 조수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만 파악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어 깨워서였다. 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거냐고 하니 애가,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 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는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줌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송 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어 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은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

송 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흠이었던 송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송 영감이 다시 눈을 뜬 것은 송 영감의 아들이 송 영감을 깨웠을 때입니다. 아들은 송 영감에게 밥을 주고, 송 영감은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버럭 화를 내지만, 미안했는지 아들에게도 맛있으니 먹어보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송 영감은 또 독을 짓습니다. 송 영감은 어제보다 쓰러지는 경우가 더 많게 됩니다. 그 정도로 송 영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독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송손이가 내년에 마저 짓자고 하지만, 송 영감은 일어났다가 쓰러졌다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독을 짓게 됩니다. 그만큼 독을 짓는 것에 대해 진심인 송 영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가) 작품과 (나) 작품은 장르만 다르지 같은 작품입니다. 그렇기에 (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를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나) 작품도 (가) 작품과 마찬가지로 송 영감의 행위나 태도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읽었으면 됩니다.

1. <보기>의 관점에서 ㉓, ㉔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㉔

<보 기>

‘장인(匠人)’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감동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 ㉓ 독을 박살 내기
- ㉔ 독 짓기

- ‘장인’이라는 소재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 <보기>입니다. ‘장인’이 문학 작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간단히 파악한 후, 우리가 읽은 작품에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① ‘아냐! 이건 독이 아냐!’는 ㉓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며,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 ㉔를 향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 준다.

→ 송 영감은 형태가 고르지 않은 독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냐! 이견 독이 아냐!’라고 하면서 망치를 들고 자신이 만든 독을 다 부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지은 독이 고르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과 분노 때문에 독을 부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냐! 이견 독이 아냐!’는 ㉔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 영감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독을 짓게 됩니다. 이는 ㉖에 대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흙덩이다!’는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㉔의 동기를 드러내고, ‘흙 몇 덩이’는 ㉖에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를 지칭한다.

→ 송 영감은 고르지 않은 독들을 보면서 ‘흙덩이다!’라고 말하면서 망치를 들고 독을 부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독에 대한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㉔의 동기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 몇 덩이’는 ㉖를 하는 데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③ ‘매섭게 보다가 웅하니 간다’는 ㉔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고, ‘조수의 환영’은 ㉖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드러낸다.

→ 석현은 송 영감이 ㉔를 하는 것을 보고 매섭게 쳐다보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매섭게 보다가 웅하니 간다’는 ㉔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㉖의 과정에서 송 영감은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조수의 환영’은 송 영감에게 있어 분노를 이끌어내는 소재입니다. 그러므로 ‘조수의 환영’은 ㉖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㉔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자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㉖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 송 영감은 고르지 못한 독들을 다 부순 후에 주저앉게 되고 목구멍에서 오열이 새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㉔를 계기로 해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㉔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독을 제대로 짓지 못하자 독을 짓는 것에 대한 집념이 좌절되었고, 그래서 망치를 들고 독을 다 부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송 영감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고 하는 것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⑤ ㉔의 행동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하는’ 것은 미적 가치

추구의 어려움을, ㉖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다.

→ 송 영감은 자신의 독을 다 부순 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하게 됩니다. 이는 미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송 영감의 슬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 영감이 ㉖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㉑~㉗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③

- ㉑ 저널때 독을 끌어내야죠.....
- ㉒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
- ㉓ (잡으며) 안됩니다! 성한 것도 있어요!
- ㉔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 ㉕ 남쪽 장길을 향해 쓰그리고 앉아 있었다

① ㉑ :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보다는 독에 가 있음을 알려준다.

→ ‘옥수’는 ‘송 영감’을 위해 약그릇을 갖다 주는 인물입니다. 즉, ‘송 영감’을 간호해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㉑은 ‘송 영감’이 독의 행방을 묻자 ‘옥수’가 단순히 대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보다는 독에 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㉒ : ‘웁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을 오만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 준다.

→ ‘웁손이’는 ‘송 영감’이 자신의 독을 부수려고 하자 ㉒라고 말합니다. 이는 ‘송 영감’이 만든 독을 부순 것을 말하려고 하는 말이지, ‘송 영감’의 행동을 오만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③ ㉓ :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 영감’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 준다.

→ ‘송 영감’은 자신이 만든 독을 흙덩이라고 하며 다 부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석현’은 성한 것도 있다며 ‘송 영감’을 말합니다. 이를 보면 두 인물 간에 독에 대한 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㉓은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 영감’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㉔ : ‘송 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 내지 못하는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 ㉔은 ‘송 영감’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쓰러지듯이 독 옆에 눕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송 영감’이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⑤ ㉕ : ‘애’가 언제나처럼 ‘웁손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 앉아 있는 이유는 어머니를 기

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㉔이 ‘애’가 ‘웁손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 [A]에서 시간의 흐름이 단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단계적으로 나타나려면 A시간대, B시간대 등이 나타나야 하는데, [A]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A]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또한 나타나지 않습니다.

② 인물 간의 대화에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A]에서 아들과 송 영감의 대화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서술자가 그 대화에 개입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 또한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새로운 인물이 다른 인물의 발화를 통해 등장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전환되고 있다.

→ 송 영감과 아들의 대화에서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전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④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아들에게 화를 내며 밥그릇을 밀쳐 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송 영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⑤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 거리와 결부하여 서술함으로써,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

→ [A]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송 영감과 송 영감의 아들입니다. 두 인물의 심리 상태가 공간적 거리와 결부되어 서술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⑤

<보 기>

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 이 <보기>는 시나리오가 원작과 다른 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는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선지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①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별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 (가)에서 송 영감이 바라보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별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송 영감은 독을 짓는 것에 진심인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고담한 백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백자기는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그런 백자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자기의 형체가 ‘햇별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송 영감이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느’와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가)에서 웁손이는 송 영감이 독을 부수는 것을 말리려 하지만 송 영감은 그것을 뿌리치고 웁손이는 나가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적 행위를 통해 송 영감과 웁손이 간의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③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뚜왕 뚜왕 뚜왕’은 송 영감이 독을 부수는 소리를 나타내는 효과음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성을 강조하고 송 영감의 분노, 절망 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나)에서 독이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은 진술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 사물에 대한 묘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적 묘사를 통해 현실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⑤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느’는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보기>에서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이고,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기>만을 근거로 한다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입니다. 그렇기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보기>에 위배되는 진술이기에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른 해설입니다. 위의 <보기>는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보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에는 적용되지만, (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에서 <보기>의 내용을 (가)와 (나) 모두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 자체가 틀렸습니니다. 그러므로 오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해설 Comment

사실 이 선지는 책마다 해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해설은 (가)는 시각적 묘사로 볼 수 있지만 (나)는 시각적 묘사로 볼 수 없다고 하고, 또 어떤 해설은 둘 다 시각적 묘사로 볼 수 없다는 등의 논쟁이 있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각적 묘사로 해설하지 않고, <보기>의 구성으로 해설했습니다. 평가원이 출제한 문제이기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이지만, 논쟁이 있는 문제이기에 너무 깊게 파고 들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모의평가가 아닌 수능에서는 이렇게 논쟁이 있는 선지가 나올 확률이 희박합니다. 이 문제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보기>를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처럼 <보기>에서 정오답이 판별되는 경우도 종종 나오기에 <보기>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